

보도시점 2026. 8. 6.(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6. 8. 5.(수)

멸종위기 저어새 번식개체군 크게 늘었다… 서해안 넘어 남해안으로 확대

- 전국 번식쌍 전년 대비 700여 쌍 증가… 국내 개체군 회복세 지속
- 순천만에서 남해안 첫 번식 확인… 신규 번식지 발견으로 국내 번식권 늘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올해(2026년) 전국 저어새 번식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국내 저어새 번식쌍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고 남해안에서 최초로 번식이 확인되는 등 개체군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저어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로 서해안 무인도를 중심으로 번식해 온 대표적인 해양성 조류다. 몸길이 60~78.5cm의 중대형 조류로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이며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개체군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번식하며 번식기는 4~7월로 4~5월에 2~4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 기간은 약 25일이며 부화한 새끼를 키우는 기간인 육추 기간은 약 40일이다.

국립생태원은 안정적인 저어새 개체군 보전을 위해 2020년부터 ‘인천 저어새 공존협의체’를 운영하며 관계기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번식지 정밀조사 및 서식지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전국 번식지 조사에서 국내 저어새 번식쌍은 3,300여 쌍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2,600여 쌍)보다 700여 쌍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서식지 관리와 민관 협력 기반의 보전활동이 개체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서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번식권이 남해안으로 넓어지는 현상도 발견됐다.

순천시 장구섬(순천만 인근)에서 남해안 최초의 저어새 번식이 확인됐으며, 한국물새네트워크의 제보를 통해 인천 영종도 매도랑에서도 번식이 포착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진은 지속적인 서식환경 개선과 민관 협력 보전활동이 이번 저어새 번식쌍 증가와 서식지 확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규 번식지 조사를 강화하고 순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보전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번식쌍 증가와 남해안 첫 번식은 저어새 보전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개체군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순천시 저어새 신규 번식지 및 각시암 환경개선.
2. 전세계(월동) 및 국내 저어새 번식개체군 현황.
3. 인천 저어새 공존협의체 운영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복원팀	책임자	팀 장	윤종민	(054-680-7410)
		담당자	전임연구원	양민승	(054-680-7419)



둥지에서 새끼를 육추 중인 저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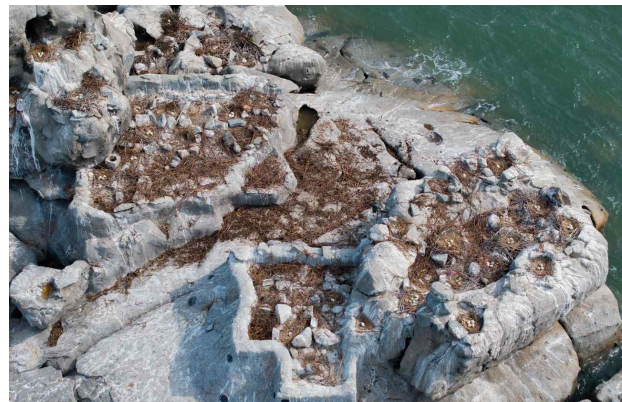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장구도 저어새 신규 번식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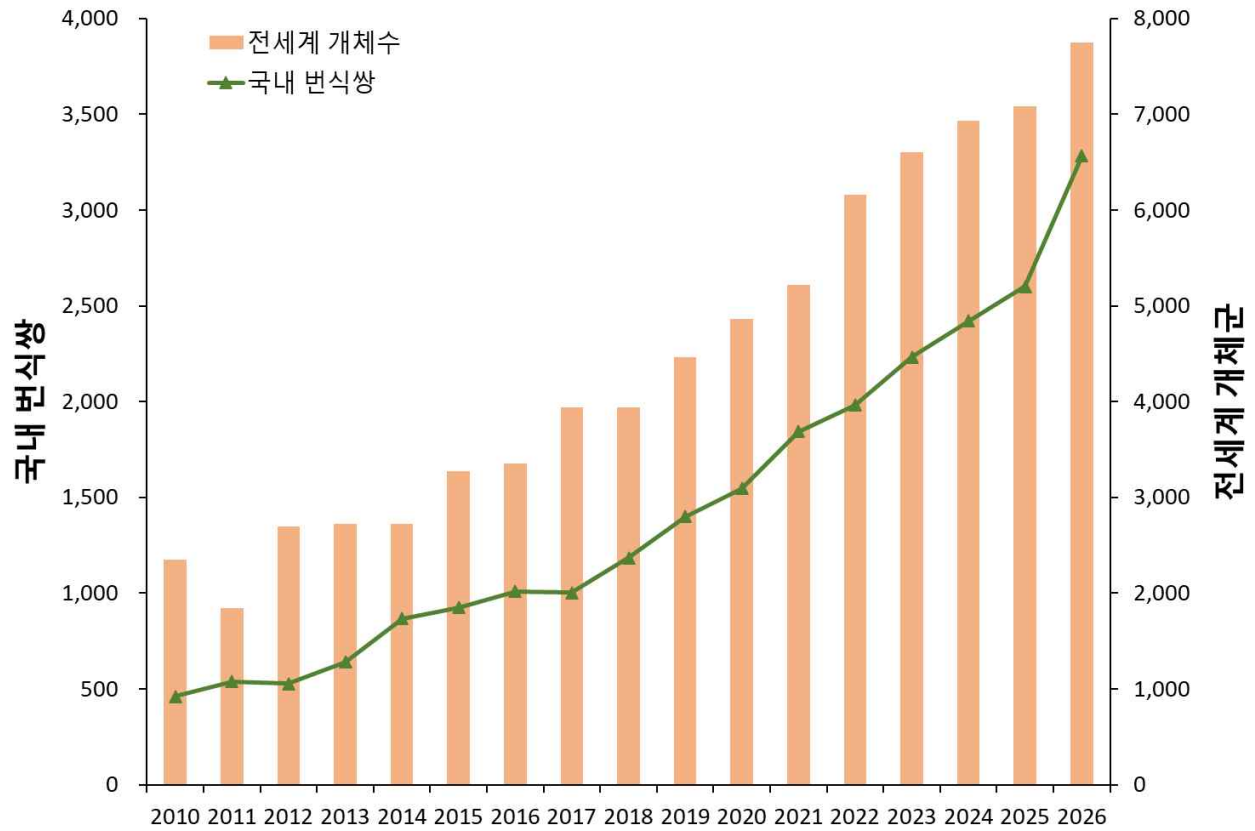
장구도 내 포란 및 육추 중인 저어새



인천광역시 강화군 각시암 인조암반 조성



각시암 내 저어새 번식지 둥지재료 공급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후에너지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년)」에 근거하여 저어새를 우선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하여 복원 연구 수행
- 효율적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 증가
- 민·관으로 구성된 협약체 구성으로 지자체 및 지역시민단체 역할 강화
 - 지역 중심의 저어새 보전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협약체 확장

□ 협약체 개요

- 발족일: 2020. 12. 10
- 참여기관: 국립생태원, 인천광역시, 한강유역환경청, 서울대공원, EAAFP, 한국물새네트워크, 저어새NGO네트워크, 생태교육허브협동조합 물새알, 영종환경연합, 한국가스공사

□ 주요 추진내용

- 전국 저어새 번식지 시민참여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
- 번식지 환경개선(인공암반, 둥지터 조성, 둥지재료 공급 등)
- 저어새 구조·증식 및 서식지 보전 협력
- 시민과학 활성화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운영

□ 주요 성과

- 전국 저어새 번식지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번식지 보호 및 위협요인 관리 강화
- 번식지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번식환경 조성
- 신규 번식지 발굴 및 남해안 첫 번식 확인에 기여